

의료혁신 선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암치유 경쟁력·연구역량 탄탄 ... 첨단의료 이끈다

화순전남대병원(원장 정신)이 탄탄한 암치유 경쟁력과 높은 고객만족도, 국제적인 연구역량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인증으로 공인된 세계적 수준의 의료질, 병상당 암수술건수 전국 1위, 수도권 병원들보다 뛰어난 암환자 생존율, 국내 최고의 자연친화적인 힐링 인프라 등으로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백신산업과 연 165조원대의 글로벌 면역치료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면서, 핵심적인 기대주라고 떠오르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5대암 빅데이터 센터'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등으로 미래의료를 밝히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암치유와 암정복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고 있는 화순전남대병원의 혁신 에너지와 빛나는 성과를 8가지로 간추려봤다.

## ① '환자 경험평가' 최상위... 고객만족 증진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공개한 '입원환자가 경험한 의료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국내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상위권인 '톱5 병원'으로 선정됐다.

'행복한 암 치유'를 모토로 환자 안전문화 확산과 고객 만족 서비스 향상,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통 증진 등에 힘쓰고 있다.

각 부서별 직원들로 구성된 '환자안전 리더'제와 '고객 경험 리더'제를 병행, 부서간 활동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임직원들이 고객만족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③ 위암 '만점' 등 분야별 암치료 최고등급

화순전남대병원은 암 치료분야에서 '전국 톱5'로 꼽히는 뛰어난 의료역량을 갖고 있다. 심평원이 매년 발표하는 각 분야별 '암치료 적정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고 있다.

올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은 6년 연속, 위암은 4차례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특히 위암 치료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 대장암도 6년 연속, 폐암도 4년 연속 1등급을 받고 있다. 특히 대장암 치료는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100점 만점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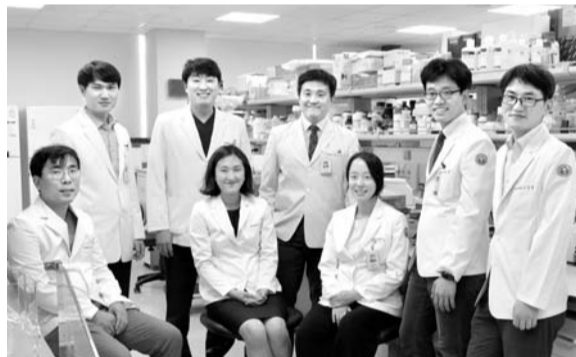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도입된 4K-3D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복강경 수술.

## ⑤ '5대암 빅데이터' 선정

화순전남대병원은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공모에서 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전립선암 등 5대 암 '빅데이터 센터'로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5대 암종별 진단데이터·치료와 추적관찰 데이터 등 표준 임상데이터를 생산·구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지정된 국립암센터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암 빅데이터 센터는 최적화된 치료를 지원하고, 진단·치료에 관한 비교연구 활성화와 의료현장 적용 등에 기여하게 된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워크숍에 참석한 의료진들.

## ⑦ 국제네트워크 확대... 해외환자 유치 '속도'

화순전남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난해를 지켰다. 호남권 최초로 지난 2011년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설한 화순전남대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물론 해외의료시장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러시아·중국을 물론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병원들과의 해외 네트워크를 넓혀가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러시아 의료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방문 무료진료.

## ② 진료환경 개선... 다학제 진료 활성화도

화순전남대병원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학제 진료 활성화 등 진료 프로세스도 개선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외래진료공간과 병동, 화장실 등의 시설을 대폭 리모델링했다. 암환자들에게 심리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코자 올해 '디스트레스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내 소화기센터·폐식도종양클리닉·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등을 이전, 공간을 넓히고 새 단장했다.

## ④ 면역치료·정밀의학 등 선두주자 떠올라

화순전남대병원이 수술·항암·방사선치료의 '제4의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면역치료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면역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해 암을 치료한다. 특히 면역치료의 핵심인 암치료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세계적인 독일 프라운호퍼 세포치료 및 면역학연구소를 원내 유치해 공동연구도 진행해오고 있다.

암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구현하는 정밀의료를 위해 2017년 정밀의학센터를 개소, 혈액암·뇌신경암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다.

## ⑥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호남권 유일

화순전남대병원이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 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분야에서 호남·제주권역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주관하는 이 사업은, 전문의 취득후 7년 이내의 젊은 의사·과학자를 집중 양성하고, 의사(MD)와 과학자(PhD)간의 연구업적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 극복을 위한 혁신적 의사·과학자 양성 및 정밀의료 파이프라인'을 주제로 연구단을 구성, 차세대 암치료를 선도해나가고 있다.

## ⑧ 말기환자 서비스도 '최우수 의료기관'

화순전남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인프라와 서비스의 질,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돌봄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8년 입원형(호스피스 병동 입원)에 이어, 지난해부터 자문형(일반병동·외래진료 이용)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펼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제주의 유일한 '광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받은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역내 호스피스 운영체계의 중심점이 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

## "예약·진료·결제 절차 간편하게" 광주·전남 최초 '모바일 앱' 호응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내원환자들의 접수·진료·결제절차를 환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광주·전남 최초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제공,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로 이용객들은 스마트폰을 활용, 진료 예약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까지 모든 절차를 앱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접수창구에서 대기할 필요없이 앱에 접속해 진료예약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예약일정과 진료 당일 스케줄을 확인할 수도 있다.

진료과별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의 진료 일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병원내 환자 동선도 대폭 줄어든다.

추가 진료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앱을 통해 원내 진료실 또는 검사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수납대기 없이 진료비 결제도 가능하다.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소멸시효(3년)내 모든 미청구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일괄청구도 가능하다. 수십개의 진료내역도 한번에 청구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모바일 앱' 초기화면.

이 모바일 앱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검색후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역사홍보존 제막식.

## "병원 발전상·미래비전 한눈에"

화순전남대병원 '역사홍보존' 개설

15년 역사 영상·사진 생생

화순전남대병원이 올해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발전추이와 구성원들의 열정·비전 등을 담은 '역사홍보존(zone)'을 지난 7월 개설했다.

힘겨웠던 병원 개원과정, 개원 이후 15년간 글로벌 암특화병원으로 발돋움해나

가는 성과, 지역활력과 미래성장동력을 일궈나가는 청사진 등을 담았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타이틀로 원내 1층 벽면에 설치된 이 기념공간은 55인치 디스플레이 10개로 구성돼 있다.

높이 1.4m, 총길이 6m에 달한다. 수록된 콘텐츠는 총 7분20초 분량의 영상과 8분가량의 사진이미지들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양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